

히루젠의 야생생물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의 일부인 히루젠 고원에는 많은 동식물이 건강한 생물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보실 수 있는 종도 있습니다. 히루젠의 고유종은 종종 히루젠 매화마름(*Ranunculus nipponicus* var. *okayamensis*)처럼 이 지역과 연관 지어 이름이 붙여집니다. 히루젠 매화마름은 옛날 히루젠의 농가에 농업용이나 생활용 물을 공급한 작은 관개 용수로에서 자라나는, 물속에서 꽃을 피우는 수초입니다. 또 하나는 1930년에 처음으로 채집된 사초의 일종인 히루젠 사초(*Carex aphyllopus* var. *impura*)입니다. 히루젠 사초는 히루젠산자의 세 봉우리 전체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나카히루젠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히루젠 고원에서는 많은 멸종위기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후사히게루리 하늘소(*Agapanthia japonica*)라는 빨이 길게 난 작은 하늘소는 가장 유명한 멸종위기종 중 하나입니다. 몸길이 15~17mm, 검은색에 가늘고 긴 몸, 금속 같은 보라색 광택, 그리고 술이 달린 더듬이가 특징입니다. 후사히게루리 하늘소는 옛날 혼슈와 홋카이도까지 서식 지역을 넓혔지만, 서식 환경인 초원이 축소되면서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이 하늘소는 오카야마현과 나가노현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서식한다고 확인된 곳은 히루젠뿐입니다. 환경부는 이 종을 야생 환경에서 멸종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내는 멸종위기 IA 류(CR)로 지정했습니다.

후사히게루리 하늘소의 성장 과정에는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만 자라는 애기원추리(*Hemerocallis citrina*)라는 식물이 꼭 필요하므로, 히루젠 고원은 하늘소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입니다. 후사히게루리 하늘소의 성충은 애기원추리를 먹으며, 이 식물의 줄기에 알을 낳습니다. 유충은 애기원추리 안에서 겨울을 나며, 애기원추리를 먹으면서 성장하여 이후 6~7월에 부화합니다. 히루젠의 애기원추리가 없어지면 이 벌레는 살 곳을 잃고 멸종될 위험이 있습니다.

히루젠에 사는 진주조개의 일종인 강진주조개(*Margaritifera laevis*)는 세계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담수 이매패 중 하나입니다. 담수 이매패는 알갱이 모양 물질을 여과하고 영양소를 방출하며 퇴적물을 섞으므로 수계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담수 이매패의 수는 인간의 활동과 서식지 축소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감했습니다. 강진주조개는 서식 환경으로 물의 흐름이 잔잔하고 섭씨 18℃~20℃를 웃돌지 않는 얇은 강이 필요합니다. 히루젠에서는 덴다니가와와 오히라가와가 이를 완전히 충족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강에는 붉은점산천어(*Oncorhynchus masou ishikawae*)가 서식합니다. 강진주조개의 유생은 치패(稚貝)가 되어 강바닥의 퇴적물에 낙하할 때까지 약 2개월간 붉은점산천어의 아가미에 기생해서 자랍니다.

그 외에도 이곳에 서식하는 희소한 종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무늬의 독특한 뒷날개를 지녔으며 흰색과 노란색의 호랑이 같은 줄무늬로 된 일본애호랑나비(*Luehdorfia japonica*)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애호랑나비는 1년에 1번, 4월경에만 모습을 드러내므로 '봄의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환경성은 일본애호랑나비를 야생 환경에서 멸종될 위험이 있는 멸종위기 II류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애호랑나비는 잡초가 적은 낙엽활엽수림에서 서식합니다. 산지가 많은 일본에는

평평하게 트인 토지가 적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산간 계곡에서 살았으며, 거주지 주변 산기슭의 언덕을 경작했습니다. 들판과 삼림을 관리한 이 곳은 마을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밖에 있는 숲에서는 벌채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정기적으로 베어 내고 다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쌓인 잎이나 부러진 가지, 잡목의 가지는 모아서 연료나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마을산을 영위하면서 일본애호랑나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은 시골보다 도시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을산 같은 형식의 토지 관리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마을산의 환경은 천연림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초원과 잡목림 대부분이 사라지며,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 종들의 서식 환경이 축소됩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애호랑나비의 서식 지역은 축소되었습니다. 히루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여지지만 현재까지는 마을산을 계속 영위하고 현지 주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잡목림도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봄의 여신’의 춤추듯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